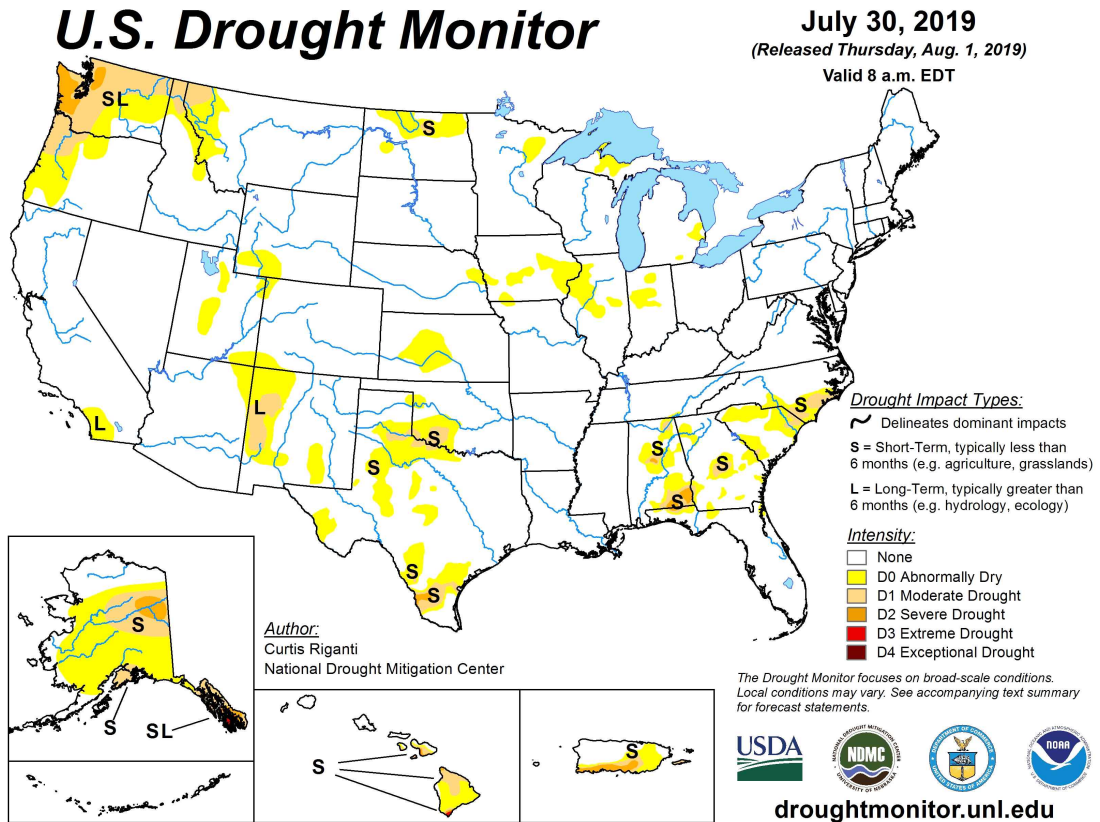


8월 6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6, No. 71)

□ 미국 기후 현황(7/28~8/3)

동부 평원, 플로리다 반도 전체, 그리고 중앙 멕시코만 등 주요 지역 몇 곳에 제한적으로 폭우가 내렸다. 캔자스 동부와 주변 지역에서 여러 차례의 폭우로 인해 지역 홍수가 발생했다. 한편,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고원과 먼 서부를 덮으면서 겨울 밀 수확과 같은 야외 작업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포도 수분은 더 줄어들었고, 방목지와 목초지와 비에 의존하는 작물에게는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그 밖의 다른 곳들은, 포코너스 주들과 북부 산간 서부 일부를 포함하여 미국 동부 절반 전체에 소나기가 드문드문 발생했다. 하지만 중앙 및 동부 옥수수 벨트에서 좀 더 건조한 구역 전반에서는 만파로 인해 발근이 불량한 옥수수와 콩에 대한 단기 건조의 악영향을 상쇄시킬 만큼 강우량이 그다지 충분하지 못했다. 정상보다 건조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서부 지역의 많은 곳은 온도가 2주 연속 정상 또는 정상 이하였다. 하지만 북동부, 고원 남부, 서부의 많은 곳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다른 많은 지역들이 평상시보다 더운 날씨가 지배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고원 남부까지 많은 지역에서 주간 평균 온도는 평년보다 5° F 이상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7/29~8/4)

비는 대평원, 델타, 및 플로리다의 일부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내렸으며 일부 지역은 4 인치 이상이었습니다. 서부와 북동부의 많은 곳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2° F 이상 높았다. 반면, 대평원 동부와 중서부 위쪽 구역들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2° F 이상 낮았다.

□ 세계 기후 현황(7/28~8/3)

■ 유럽: 광범위하게 내린 소나기로 폭염이 누그러졌고 대륙의 많은 곳들에서 전반적으로 수분 공급이 유지되거나 개선되었다. 북부와 동부의 재배 지역은 전반적으로 이상 고온이 여전했으나 (평년보다 1-4° C 높음), 지난주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았다. 더욱이, 유럽 남서부는 전반적으로 날씨가 평년보다 시원해졌다 (평년보다 최대 4° C 낮음). 이 시원한 기온이 특히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주요 여름 작물 지역에서 최근에 있었던 극심한 무더위를 잠재웠다. 더욱이, 또 한 차례 적시에 내린 소나기 (5-20 mm)는 프랑스 남부의 옥수수 와 해바라기의 수확량 전망을 밝혀주었고 이탈리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폭우 (10-100 mm) 가 가뭄 문제를 완화하거나 끝냈다. 최근 나아지고 있지만 7월 중에 있었던 열과 건조는 특히 프랑스의 옥수수에겐 시기적절하지 못했는데, 7월 말 온도가 41° C를 기록했을 때 생장 단계가 솟아삭 출현기와 수염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남프랑스에 유익한 비가 내렸지만 북부 재배 지역은 여전히 건조하여 곧 다가오는 겨울 작물 파종을 위해서는 수분이 필요할 것이다. 스페인도 계속 건조하여 가뭄 때문에 개화기 및 종실 비대기에 있는 중부 및 남부 지역의 여름 작물들은 관개 필요 수준이 여전히 높았다. 반대로 북스페인 (카스틸 라우렌)의 옥수수와 해바라기는 지난 30일 동안 적시에 내린 비 덕분에 혜택을 받았다 (평년의 100-200 퍼센트, 지역적으로는 더 많음). 한편 적당히 또는 강하게 내린 소나기 (10-75 mm, 지역적으로는 더 많이) 덕분에 대부분의 북유럽 전역 (프랑스를 제외하고)에서 겨울 유채 파종에 필요한 수분 공급이 개선되었고 개화기 또는 종실 비대기에 있는 남동부 재배 지역의 옥수수, 콩에 대해서 우수한 수확량 전망을 유지했다.

■ 구소련(서부): 지역의 많은 곳에서 작물의 전망은 좋은 상태를 유지했다. 여름 작물은 대부분 해로운 열 스트레스나 또는 수분 결핍 없어서 주요 생식기를 지나 현재는 종실 비대기 중에 있다. 유익한 소나기 (5-50 mm, 지역적으로는 더 많이)가 한 주 더 내리고 온도가 평년 수준 또는 평년보다 낮아서 (동부 재배 지역은 평년보다 최대 5° C 낮음) 중앙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서중앙 러시아까지 종실 비대 중인 옥수수, 해바라기, 콩의 수확량 전망이 상승되었다. 다만, 동우크라이나와 인근 지역에서는 다소 건조한 조건 (5 mm 이하)이 나타났다. 흑해 서부 지역에서부터 벨라루스까지 평년보다 1-4° C 높은 따뜻한 날씨가 나타났지만 가벼운-중간 정도의 소나기 (5-20 mm)가 내려서 낮 최고 온도는 잠재력에 비하여 섭씨 30도 대 아래 또는 중반으로 밀려났다.

■ 동아시아: 소나기가 북동부에서 북중국 평원까지 그리고 양쯔 계곡 서부 구역 전체로 확장되었다. 북동부에 내린 비 (25-100 mm)는 생식 중인 콩과 옥수수에겐 좋음-최고의 수분 조건을 유지했고 평년 수준에 근접하여 계절적인 수분 수준을 겪고 있었던 랴오닝성 (요녕성)의 작물들에게는 아주 유익했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덥고 건조한 날씨로 여름 작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북중국 평원에게는 고마운 비 (25-100 mm)였다. 먼 남쪽은 소나기 (25-100 mm)가 양쯔 계곡의 서쪽 구역의 벼에게 평년 이상의 총강수량을 유지시켜주었으나 7월 중순부터 동쪽 일부와 남동부 거의 전체는 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관개 수요가 증가했다. 한편 태풍 (위파)이 남부 해안을 뒤덮었고 사탕수수 지역에 지역적으로 폭우 (300 mm 이상)를 일으켰다. 한반도에는 소나기 (25-150 mm)가 단기 (4-6주) 가뭄을 해소했지만 장기 (6주 이상)



수분 결핍은 여전히 상당했다. 반면, 북일본의 주요 벼 재배 지역에서는 계절적으로 이상 건조가 계속되었는데 지난 8주간 이곳의 총강수량은 평년 대비 60 퍼센트였다.

■ 호주: 흠뻑 젖는 비 (10-25 mm, 지역적으로는 더 많이)가 퀸즐랜드 중심부까지 확장됐지만 대부분 비는 동호주의 밀 벨트 북부에 내렸다. 실제로 가뭄이 심한 남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북부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밀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고 여름 작물 파종에 앞서서 토양 수분 및 저수 보충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먼 남쪽은 넓게 퍼져 내린 소나기 (5-15 mm, 지역적으로는 더 많이)가 뉴사우스웨일즈 남부와 빅토리아 북동부로 이동하여 영양생장 중인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게 필요한 표토 수분을 올려주고 있었다. 고마운 비였지만 현재의 작물 전망을 유지하려면 더 지속적으로 비가 내려야 도움이 될 것이다. 그밖에 밀 벨트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 (5 mm 이하)가 빅토리아의 나머지 지역과 대부분의 남호주와 서호주를 덮었다. 맑은 하늘과 대체로 충분한 수분 공급이 밀, 보리, 캐놀라의 발달을 촉진시켰지만 이들 지역은 비가 더 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서호주는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1-2° C 높았고 밀 벨트 내 다른 지역은 평년 수준에 가까웠다.

■ 아르헨티나: 건조한 날씨가 대부분의 아르헨티나 농업 지역을 지배하여 마지막 단계의 여름 작물 수확과 겨울 곡류 파종을 돕고 있었다. 지난주 계절적인 이상 강우를 기록했던 북동부 구역들 (산타페의 북부와 북동부)을 포함하여 아르헨티나 중부와 북부 농업 지역 대부분은 완전히 건조했다. 주간 평균 기온은 대체적으로 평년 대비 1° C 내외였지만 많은 곳들의 밤 최저 온도가 결빙 또는 결빙 이하를 기록했고 낮 최고 온도 범위는 가장 낮게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섭씨 10도 대 상위였고 가장 높게는 포모사에서 30도 대 하위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목화 수확량은 8월 1일 현재 각각 89%와 95% 완료되었다. 밀도 98% 파종되면서 거의 완료되고 있었다.

■ 브라질: 브라질의 중부 및 북동부 지역에서는 계절에 따른 따뜻함과 건조함으로 옥수수와 목화의 수확이 빠른 속도를 유지했다. 마토그로소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상파울로, 북동쪽으로 토칸틴스, 바히아 서부와 그 주변으로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 마토그로소와 토칸틴스 인근의 전통적으로 따뜻한 곳에서는 낮 최고 온도가 섭씨 30도 대 상위로 올라가 건조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 마토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8월 2일 현재 옥수수는 98% 수확되었고, 목화는 36% 수확되어 5년 평균치 대비 39%보다 약간 뒤떨어졌다. 다른 곳으로는, 북부 농업 지대를 지배하고 있던 건조가 남쪽으로 파라나를 지나기까지 확장되었으나 리오그란데도술에서는 지역적으로 강한 비가 (25-50 mm 또는 그 이상) 계속되어 영양생장 중인 밀을 위한 수분을 풍부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파라나 남부와 리오그란데도술 북부의 전통적으로 서늘한 곳들에서는 밤 최저 기온이 0° C까지 떨어지기는 했지만 결빙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보고는 없었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7월 29일 현재 2차 작물 옥수수는 73% 수확되었고, 남은 옥수수도 거의 성숙기에 도달했다. 하지만 밀은 약 65%가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였다. 한편 리도그란데도술에서는 8월 1일 현재 밀의 3%가 개화기에 도달했다. 한편 북동부 해안을 따라 계절 강우 (10-50 mm)가 계속되면서 사탕수수, 코코아 및 커피에게 필요한 수분 저장량을 올리고 있었다.

